

# 한상복의 《배려》

도덕적 가치 · 세속의 성공, 그 불편한 동거  
 ‘인仁은 행 · 불행 넘어선 도덕적 전망’ 임을 외면  
 ‘배려 없는 사회적 이유와 인간에 대한 통찰 부족’

글\_ 박민영 출판평론가

얼마 전, 어느 인터뷰에선가 이외수가 “생각을 바꾸는 책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책을 쓰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대충 이해하겠지만, 이 말에는 어폐가 있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

《배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본 독자들이 ‘배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독자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역시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태도를 바꾸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배려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스스로를 위한 배려로 ‘솔직하라!’, 너와 나를 위한 배려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라!’, 모두를 위한 배려로 ‘통찰력을 가지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에 해당하고,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작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 즉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생각의 변화를 도외시킨 채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책은 사실상 공자 사상의 핵심인 ‘인’을 현대 직장인에게 맞게 우화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도덕적 스승의 이미지를 가진 회사 고문 ‘인도자’와 1팀장 ‘공자알’이 등장한다는 점, 그들이 주로 논어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주변 사람들을 계몽한다는 점은 저자가 논어를 주된 참고문헌으로 삼아 ‘인’에서 ‘배려’라는 덕목을 뽑아냈



《배려》한상복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60쪽 | 값 10,000원

음을 짐작케 한다.

논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자의 3·4대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엮은 일종의 ‘어록집’이다. 이 책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 공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가 생략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잠언집’으로 여기곤 한다. 논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도덕적 정언명령인 ‘인’에 관한 사상서

요, 철학서이다. 그 인에 대한 일반

인의 보편적인 실천강령이 ‘예’고, 그 인에 대한 군주의 통치강령이 ‘덕치’가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논어의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 《배려》에도 본래 인이 가진 사상적 맥락과 거리가 먼 해석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다.

“이해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만 못하다. 좋아한다는 것은 즐긴다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이 책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다. “일의 출발은 이해입니다. 어떤 것인지 알아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만으로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일 자체를 좋아해야 일이 잘 됩니다.”(45쪽)

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자의 이 말은 본래 ‘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풀이하자면, 인을 머리로 아는 것은, 인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인을 좋아하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 이 책에서는 엉뚱하게도 직장 업무에 잘 적용하기 위한 덕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 더 보자. “군자는 스스로 재능이 없음을 근심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 책

에서는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39쪽) 그러나 이 말 역시 본래 '인' 과 관련하여 공자가 한 말이다. 풀이하자면 군자는 스스로 '인' 을 실천하지 못함을 근심하며 '인' 의 길을 묵묵히 갈 뿐,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남의 탓을 하기 보다는 내 탓으로 여기라' 는 책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배려하는 자가 성공 한다”는 카피는 이 책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즉 도덕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이고, 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배려는 만병통치약에 가깝다. “배려는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고, 경쟁자를 앞지르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238쪽)

이 책이 '배려' 라는 도덕적인 덕목을 주장하면서도 경쟁과 성공의 논리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1천억 원이 넘는 회사의 대표가 군소 협력사 사장을 맞이하기 위해 주차장까지 나와 기다리는 장면을 그려놓고 “일종의 이미지 관리로 보인다”는 주인공의 말에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더욱 대단한 거죠. 그런 계산으로, 마음에도 없는 일을 수십 년이나 반복한다는 것만 해도 존경받을 일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87쪽) 또한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는 “고객의 요구에 발맞춘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탈바꿈한다.(32-33쪽)

결론적으로 도덕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성공 둘 다 잡겠다는 것은 과욕이며 불편한 동거다. 도덕적인 가치는 현실적으로 결코 높은 지위와 부로 표방되는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과 같은 덕목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높은 지위와 부를 보장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적인, 사회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공자가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고 말했을 때, “먼 생각”이란 개인적 차원의 행·불행을 넘어선 도덕적 전망을 일컫는다. 공자의 도덕적 전망인 인에 대한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자기 확신은 “제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룬다”는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표현되고 있다.

논어를 통독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공자는 한 번도 이

익(利)을 주장한 적이 없다. 반면 이익에 대해 비판한 말은 많다. “군자는 의에 깨치고 소인은 이에 깨친다.” “이로움에 빠져 행동하면 원망하는 일이 많아진다.” 등이 그것이다. 공자가 이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이익이 인의 실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인은 '배려' 라는 이름으로도 덕적 명분과 사회적 성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처세술로 변모하고 있다.

**'배려' 라는 덕목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필자 역시 타인에 대한 배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축에 속한다. 그러나 남을 배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가도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것은 첫째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와 환경 때문이다. 그 경쟁 시스템에서 약자는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되고, 강자는 더욱 성공하기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책에는 남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이유가 거의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로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기 때문이다.

공자가 인을 주장하면서 군주들에게 덕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사회 시스템이 건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인을 주장해도 사회적으로 그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의 “인간의 본성은 가까우나 그 길든 바가 멀다.”는 말은 인이 어떤 정신적 차원에서 실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사람은 본래 비슷하지만,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 '길든 바', 즉 각자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너와 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통찰은 인을 이해하는 데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남에 대한 배려가 어떤 정신적 지적 차원에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배려' 라는 도덕의 논리로 이익의 논리를 대변하려 했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적이다. 이 책이 인을 현대 직장인들에게 알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명분이 인이 가지는 본래의 사상적 맥락과 정반대로 해석되는 것마저 합리화시켜줄 수는 없다. 이 책에는 과거 나라를 망친 것이 “선현의 가르침을 곡해해서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며 현대인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겨 출발점을 잊고 말았”다는 대목이 있다(94쪽). 나는 그 말이 이 책 자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